

강의계획서

그림 읽는 법 — 고전에서 현대미술까지

강좌명	그림 읽는 법 — 고전에서 현대미술까지 (앉아서 떠나는 유럽 명화 여행)
강사명	김태환 (손에잡히는유럽 대표 /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정부 공인 가이드)
대영역(전공)	인문학
중영역(교육분야)	문화예술교육
강의방법	해설형 강의 (이미지 슬라이드 기반, 상호작용형 질문 포함)
횟수 / 시수	1 회 / 2 시간 (특강)
교재 및 재료비	총비용 0 원 (별도 교재 없음, 강사 자료 슬라이드로 진행)

강좌 소개 (홍보용)

유럽 주요 도시의 명소와 명화를 중심으로, 마치 앉아서 유럽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풀어내는 해설형 인문학 강연이다. 그림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유럽 미술관에 들어가 스스로 그림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 목표

- 고전 회화를 '천천히, 자세히' 읽는 법을 익힌다 — 화면을 멈춤 장면처럼 보며 숨은 그림을 찾듯 서사를 재구성하고, 그 안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간다.
- 카메라 발명 이후 미술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역할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기 시작한 전환의 맥락을 이해한다.
- 유럽 미술관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 안내 없이도 스스로 그림 앞에 머물러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기초 관람법을 갖춘다.

강의 내용

PART 1 고전 — 멈춰진 장면 속 숨은 서사

고전 회화 한 점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놓고, 화면 속 인물의 몸짓·시선·배치를 단서 삼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재구성한다.

방식 숨은그림찾기 하듯 화면을 세부까지 천천히 관찰 → 서사 재구성 → 숨은 메시지 도출

주요 작품 화가·시대별 대표작 중심 (강연 대상 기관에 맞춰 선정)

PART 2 현대미술 — 카메라 이후,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다

카메라의 발명으로 '똑같이 그리는' 역할을 잃은 화가들이 무엇을 그리기 시작했는지를 추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개념·구조를 그림으로 옮기기 시작한 전환점을 짚는다.

방식 고전과의 대비를 통해 현대미술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와, 그 낯설을 읽는 법을 함께 정리

주요 작품 카메라 등장 이후 화가별 대표작 중심 (강연 대상 기관에 맞춰 선정)

강사 주요 이력

2005~2019 유럽 주요 박물관(루브르·바티칸·우피치·프라도 등) 현장 해설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정부 공인 가이드, 발급번호 F120174911) / 2014~현재 대전시민대학 외 공공기관·기업 대상 서양미술사·인문학 강연